

스마트공장 확산, 제조업 경쟁력 강화

4차 산업위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으로 7만 5000개 일자리 창출”

정부가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해 7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8일 오후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 수요 전망’ 등 안건을 논의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지난 1월부터 위원회 내 ‘스마트공장 TF’를 구성·운영, 민간전문가와 정부부처(중기부·과기정통부·산업부)간 협력을 통해 스마트 공장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산업경제 혁신위 심의를 거쳐 전체위원회에 상정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현장에서 기업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집중해 이를 개선·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해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찾아오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목표 하에 정책이 마련됐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세부적인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지원기관, 기업, 지자체 등의 유기적 협업을 촉진하는 ‘스마트공장 추진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도 TF 및 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에 대해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별 고용변화를 처음으로 정량적으로 분석·전망해 시나리오별 구체적 결과치를 제시함으로써, 산업·고용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공장은 불량률 감소, 납기단축 등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는 노동환경에 대응해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4차산업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2800개사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 30% 증가 ▲불량률 45% 증가 ▲생산시간 16% 감소 ▲평균고용 2.2명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다.

특히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재해를 22% 낮췄다. 이에 대해 4차산업위는 청년 및 여성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회확대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스마트공장 보급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유도하는 새 정부의 선도사업으로 2022년까지 2만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이되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번 전략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급·구축기업에 일자리 7만5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4차산업위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지역 중심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먼저 정부 지원, 대기업 지원으로 이뤄낸 방식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지방중기청·TP(테크노파크) 등이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장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에 R&D, 자금 등 정책수단을 연계 지원하며지역별

로 스마트공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6개 국가산업단지를 확산거점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4차산업위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지역 중심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먼저 정부 지원, 대기업 지원으로 이뤄낸 방식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지방중기청·TP(테크노파크) 등이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장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에 R&D, 자금 등 정책수단을 연계 지원하며지역별

로 스마트공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6개 국가산업단지를 확산거점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4차산업위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센서·로봇·솔루션 등 요소기술 및 AI·VR 등 고도화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업종별·지역별 시범공장(올해 6개→2022년 50개)과 대표공장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벤치마킹 하도록 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공동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뉴스1

블록체인 기반 카카오페이 인증, 가입자 100만 돌파

카카오페이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인증 서비스 ‘카카오페이 인증’이 출시 8개월 여만에 가입자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는 카카오옥을 기반으로 간편한 가입·인증 프로세스와 고객 인증 정보를 블록체인에 연결시켰다.

최근 모바일 플랫폼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되며 서비스 공신력도 한층 강화했다.

카카오페이는 6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에 대한 전자문서 수신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공공 및 민간기관의 고지·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현재 카카오옥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동의, 신용정보 조회동의, 보험 청약, 대출 계약 등 중요 문서에 대한 확인 및 전자서명을 제공 중이다. 이달 중 인터파크를 시작으로 본인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등 고객 로그인 정보 관리 기능도 지원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올해에는 제휴 기관을 빠르게 확대하고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를 통해 보안성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며 “카카오페이 인증을 파트너사와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인증 솔루션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중소 기술혁신 적극 지원… R&D 바우처에 민간기업 포함”

김종진 기재2차관, 중소기업 지원 분야 과제 관련

김종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부는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으로 제한하던 R&D 바우처 사용 대상 기관에 민간 R&D전문기업을 포함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방문, 중소기업 지원 분야 과제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김 차관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출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 “단순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인프라·생태계 조성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R&D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방식에 대한 혁신 방향을 각각 설명했다.

김 차관은 “개발단계 연구개발 지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비용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R&D 바우처 이용기관으로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뛰어난 민간기업도 포함해, 민간 연구개발 서비스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R&D바우처 사용이 소극적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해당 제도의 의견을 넓혀줬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차관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해 “정책자금 지원 출업제와 ‘철결음기업 지원제’ 도입을 언급하며 “보다 많은 혁신적 기업들이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초기기업들에 대한 정책자금이 보다 많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한

다”고 말했다.

또 김 차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같이 지식·기술 인프라 중심의 지원방식을 11개 지역 기관에 민간 R&D전문기업을 포함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향한 격려와 당부의 말도 전했다. 특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절반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중소기업은 혁신성장의 주체이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일지라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재정·세제·금융·제도·규제를 망라한 다각적 정책 조합을 검토 중이다”며 “그 대상 중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창업기업에 보다 손쉬운 자금 조달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했다. 기업이 도전적인 연구에 나설 수 있도록하는 R&D 투자여건 마련도 건의했다.

정부측은 기업별 1대1 대출상담과 같이 창업·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조달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고, R&D와 관련해서는 성실실업 검증 기준을 개선해 도전과 혁신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신안천일염 춘천식 순살 닭갈비 출시

하림, 안동식 순살 찜닭 등 2종 선보여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신안 지역의 청정 깻벌에서 만든 천일염으로 간을 해 속살까지 맛있는 ‘신안천일염 춘천식 순살 닭갈비’와 ‘신안천일염 안동식 순살 찜닭’ 등 2종을 8일부터 선보인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신안 청정 지역의 깨끗한 해수를 적당한 햇살 아래 건조해 품질이 뛰어나고 갈뽀와 마그네슘 등의 영양 성분까지 풍부해 천일염 중에서도 최고로 순짭하는 신안천일염으로 닭고기를 염지해 갈뽀하면서도 건강한 맛은 물론, 속살까지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하림이 염선해 키운 국내산 닭고기를 먹기 편하도록 순살만을 사용했으며 하림만의 노하우가 담긴 특제소스를 별도로 동봉해 개인의 취향과 입맛에 따라 조절해



리를 할 수 있다. 요리가 서툰 초보자나 1~2인 가구, 맛별이 부부 등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다.

각종 야채와 떡, 치즈 등을 더하면 일품요리로 즐길 수 있다.

하림 ‘신안천일염 춘천식 순살 닭갈비’와 ‘신안천일염 안동식 순살 찜닭’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및 중소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4천원 중반 대. /익산=장양원 기자



롯데백 전주점, ‘봄 맛이 립스틱’ 프로모션 진행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봄 시즌을 맞아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오늘, 그대 입술은 봄’이라는 테마로 립스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롯데백화점 전주점 첫 립스틱 대량 기획전으로 입생로랑, 맥, 메이크업포에버, 랑콤 등 16개 국내외 유명 브랜드가 참여하며, 총 1만 8000여 개의 기획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전주점은 메이크업 필수 아이

템으로 떠오른 립스틱 홍보를 위해 경품행사, 스토어 운영, 한정상품 기획, 예약 고객 대상 메이크업 등의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전주점은 20만·30만·40만·60만 이상 구매 고객에게 5% 롯데상품권을 증정하고 10만원 이상 고객에게는 립스틱 1만원 입생로랑 소품 지원금 등을 제공한다.

/이상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